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태 교육 방안 제언

- 추측과 의도의 ‘-(으)르까 하-/보-’ 중심으로

양지현 (경상대)

## < 목 차 >

- |                            |                          |
|----------------------------|--------------------------|
| 1. 들머리                     | 4. ‘-(으)르까 하-/보-’의 교육 방안 |
| 2.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양태 표현<br>현황 | 5. 마무리                   |
| 3. 추측과 의도의 ‘-(으)르까 하-/보-’  |                          |

### 국문초록

한국어 교재에는 추측이나 의도가 담긴 표현이 제법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추측과 의도를 모두 지니는 것에는 복합형 ‘-(으)르 테니까’, ‘-(으)르 것이다’ 등이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동일 형태일지라도 단원을 달리하여 추측과 의도를 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둘 이상의 양태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언어 이해 측면에서든 언어 사용능력 향상 측면에서든 하나의 양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단원을 나눈 것은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는 추측과 의도가 모두 담긴 복합형임에도 ‘-(으)르까 하-’는 의도에, ‘-(으)르까 보-’는 추측에 치중하여 교육되고 있음을 한국어 교재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는 사용이 잦은 표현이므로 여기에 담긴 추측과 의도는 모두 교육되어야 한다.

추측과 의도는 ‘-(으)르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어울려 쓰는 용언 ‘하

-’나 ‘보-’에 따라 서로 쓰임이 겹치기도 하고, 그 의미나 통사적 특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의 의미·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 교육 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학습의 부담이 적거나 자주 쓰는 것을 우선 제시하여 그 특성을 교육하고, 이후 서로 비교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잘 부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어: 추측, 의도, 양태, ‘-(으)르까 하-’, ‘-(으)르까 보-’

## 1. 들머리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우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는 추측이나 의도와 같은 양태가 담긴 표현들도 있다. 추측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들은 한두 개가 아닐뿐더러 그 쓰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겠-’이나 ‘-(으)르 것이다’처럼 한 형태에 둘 이상의 양태를 담고 있는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한 형태가 두 가지 이상의 양태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누어 학습하게 함으로써 언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가 언어를 이해하거나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담긴 양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에 대체로 모두 가르치고 있다.

우선, 한국어 교육에서 양태 표현과 관련하여 지금껏 연구되어 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에서 양태 표현 연구로, 김동욱(2000)에서는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 ‘-(으)르 듯하다’의 의미 차이를, 선은희(2003)에서는 추측과 관련하여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를 중심으로 의미 차이와 교수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운진·노지니(2003)에서는 ‘-겠-’, ‘-(으)르 것이다’,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 ‘-(으)르래요’, ‘-

(으)르게요’, ‘-(으)르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준호(2010)에서는 ‘-는 것 같다’, ‘-나 보다’, ‘-는 모양이다’에 대해 연구하였다. 박숙영(2006)에서 ‘-(으)르 것이다’, ‘-(으)르래요’, ‘-(으)르게요’를 중심으로 의지 정도성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김세령(2010)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추측표현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윤혜진(2011)에서는 추측표현의 항목을 선정하고 등급화하였다. 이 외 한 형태에 두 가지 이상 양태를 담고 있는 표현, 즉 ‘-겠-’, ‘-(으)르 것이다’를 중점으로 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강현주(2010), 김은경(2015), 조문경(2018)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다수 추측이나 의도표현에 담긴 특성을 살피거나 의미의 정도성에 따라 순서를 매겨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우 의미 있는 것들로 학습자들이 각각의 구문들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겠-’과 ‘-(으)르 것이다’처럼 추측이나 의도를 동시에 담고 있음에도 ‘-(으)르까 하-/보-’는 다른 양태 표현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 글에서는 여러 양태 표현 중 ‘-(으)르까 하-/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으)르까 하-/보-’는 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는 많지 않으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 표현이다. 그런데 양태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쳐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살펴 교육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양태 표현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고 ‘-(으)르까 하-/보-’가 한국어 교재에 어떻게 제시되고 교육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으)르까 하-/보-’의 특성을 살피고 교육 방안도 제언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양태 표현 현황

### 2.1. 교재에 제시된 추측과 의도표현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교재가 많지 않았으므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설립된 지 오래인 연세대(1959)나 서울대(1969) 한국어 교육기관이 편찬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이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교재를 편찬했으나 모든 한국어 교재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여기서는 이른 시기부터 교육해 온 대학이 편찬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sup>1)</sup>

교재별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추측과 의도표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추측	의도
어미	-겠-	○	○
	-(으)려고		○
	-(으)르게		○
	-(으)르래		○
	-(으)르걸	○	
복합형	-(으)르 테니까	○	○
	-(으)르 것이다.	○	○
	<b>-(으)르까 하다.</b>		○
	<b>-(으)르까 봐(서)</b>	○	
	-(으)ㄴ/는 것 같다.	○	
	-나 보다/-(으)ㄴ가 보다	○	
	-(으)ㄴ/는 모양이다.	○	

<표1>

위의 <표1>을 보면 각 교재에서는 추측과 의도의 의미를 모두 지니는 것으로 ‘-겠-’, ‘-(으)르 테니까’, ‘-(으)르 것이다’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체로

- 1)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연세 한국어’(YS), ‘서울대한국어’(SN), ‘경희 한국어 문법’(KH), ‘서강한국어 new’(SG), ‘이화 한국어’(EW), ‘재미 있는 한국어(고려대)’(KR) 교재를 선정하였다. 논의 중에 필요한 대학 교재의 명칭은 괄호 속 약자로 대신한다.
- 2) <표1>에서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는 의도나 추측으로 편중되어 가르치고 있었다. ‘-(으)르까 하-’, ‘-(으)르까 보-’가 편중된 쪽으로 ‘○’를 표시하였다.

어미 ‘-겠-’을 제외한 나머지 둘은 복합형태로 가르치고 있다. 즉, ‘-(으)르 테니까’는 관형형 어미 ‘-(으)르’과 의존명사, 어미 ‘-(으)니까’로 이루어진 복합형태로, ‘-(으)르 것이다’는 관형형 어미 ‘-(으)르’과 의존명사, 서술격조사 ‘이다’로 이루어진 복합형태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 복합형이 추측이나 의도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으)르’에 의한 것이다. ‘-(으)르’은 사태를 추측하거나 행위주의 의도를 드러낼 때 쓰이는 서법선어말 어미 ‘-리-’라고 할 수 있다. 이 ‘-리-’는 현대국어에서 관형형 ‘-(으)르’이나 의문형 ‘-(으)르까’의 ‘-(으)르’ 등에 남아 있다.<sup>3)</sup>

그런데 <표1>을 보면 복합형 중에서 추측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으)르 까’가 쓰인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의 교육에 있어서는 양태 교육이 편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의 교육 내용을 교재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으)르까 하-		-(으)르까 보-	
	의도	추측	의도	추측
YS	○	×	○	○
SN	○	○	×	○
KH	○	×	×	○
SG	○	×	×	○
EW	○	×	×	○
KR	○	×	×	○

<표2>

<표2>에서 보면, 복합형 중 ‘-(으)르까 하-’는 대체로 의도의 표현에 치우

3)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리-’에 화자가 발화시의 사태나 그 이후의 사태를 추측하기도 하고, 욕구나 의향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쳐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1)은 각 교재에 제시된 예이며, 초급2와 중급3에서 가르치고 있다.

- (1) ㄱ. 영어를 배울까 하는데 어느 학원이 좋아요? (YS 2권)
- ㄴ. 이번 방학에 제주도에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SN 2B)
- ㄷ. 오랜만에 피자를 먹을까 해요. (KH 2권)
- ㄹ.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여행을 갈까 해요. (SG 3B)
- ㅁ. 친구들과 영화나 볼까 해요. (EW 2권)
- ㅂ. 전 할 일이 많아서 김밥이나 먹을까 해요. (KR 2권)

더불어, 추측의 ‘-(으)르까 하-’를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서울대 교재(SN) 뿐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2)에서 보듯, ‘-(으)르까 하-’가 아니라 부정형 ‘-지 않을까 하다[싶다]’, ‘이/가 아닐까 하다[싶다]’로 제시되어 있다.

- (2) ㄱ. 초등학교 때 보내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을까 해요. (SN 5A)
- ㄴ. 그런 일을 10살짜리 아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한다. (SN 5A)

반면, ‘-(으)르까 보-’는 ‘-(으)르까 봐’ 형태로 ‘걱정이나 두려움을 동반한 추측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래 (3)은 각 교재에 제시된 예이며, 대체로 중급3 내지 중급4 수준에서 가르치고 있다.

- (3) ㄱ. 비가 올까 봐 우산을 가지고 왔다. (YS 3권)
- 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플까 봐 조금만 먹었어요. (SN 3B)
- ㄷ. 일기장을 누가 볼까 봐서 책상 서랍 안에 숨겨 두었다. (KH 4권)
- ㄹ. 소화가 안 될까 봐 안 먹어요. (SG 4권)
- ㅁ. 여행 중에 혹시 머리가 아플까 봐 약을 준비했어요. (EW 3권)
- ㅂ. 발표에서 실수할까 봐 잠도 못 잤어요. (KR 2권)

‘-(으)르까 보-’에 의도의 의미가 있음을 가르치는 교재는 연세대(YS) 한

곳이며<sup>4)</sup>, 그 예는 아래 (4)와 같다. 이 외에 다른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으)르까 하-’는 의도표현에, ‘-(으)르까 보-’는 추측표현에 치우쳐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4) ㄱ.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이번에는 투표하지 말까 봐요. (YS 4권)  
    ㄴ. 오늘은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집에 가서 비디오나 볼까 보다.  
    (YS 4권)

그런데 ‘-(으)르까 하-’는 추측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으)르까 보-’가 추측표현으로 쓰이는 것보다 잦다. 윤혜진(2011)에서는 추측표현에서 ‘-(으)르까 하-’의 상대 빈도가 문어에서나 구어에서나 ‘-(으)르까 보-’보다 높음을 보였다.<sup>5)</sup> 이는 ‘-(으)르까 하-’가 의도표현뿐만 아니라 추측표현으로도 교육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으)르까 보-’ 역시 추측뿐만 아니라 의도의 양태도 가진 표현이다. 한어형에 둘 이상 양태를 담고 있다고 해서 꼭 모두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현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사용뿐 아니라 이해 측면에서라도 교육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교재에 제시하여 가르치거나 교육 학습 자료에 반영하여 가르쳐야 한다.

요컨대, 추측과 의도의 ‘-(으)르까 하-/보-’는 한국어 교재나 교수 학습 자료에서 문법 제시 방법에 따라, ‘-(으)르까 하-1’과 ‘-(으)르까 하-2’로 나누어 의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추측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으)르까

4) 연세대(YS) 4권 10과에서는 ‘-을까/르까 보다’로 제시하여 ‘아직 확실히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때 쓴다.’라고 하여 ‘-(으)르까 보-’가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5) 윤혜진(2011)에서 추측표현 사용 빈도를 현대 구어(1,008,669 어절), 문어 말뭉치(15,293,877 어절)를 대상으로 살폈다. 이 중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도 있었다. 추측표현에서 ‘-(으)르까 하-’의 상대 빈도가 문어에서 0.99%, 구어에서 0.61%로, ‘-(으)르까 보-’의 상대 빈도가 문어에서 0.25%, 구어에서 0.49%로 나타났다.

보-' 역시 '-(으)르까 보-'과 '-(으)르까 보-'로 나누어 이 복합형에 추측뿐만 아니라 의도라는 양태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 3. 추측과 의도의 '-(으)르까 하-/보-'

이 장에서는 '-(으)르까 하-/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양태를 기준으로 추측의 '-(으)르까 하-/보-'를 먼저 살펴보고 그 뒤 의도의 '-(으)르까 하-/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추측의 '-(으)르까 하-/보-'

추측의 의미를 지닌 '-(으)르까 하-/보-' 중 '-(으)르까 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으)르까 하-'의 '하-'는 '행위'나 '작용'보다는 '-(으)르까'에 담긴 추측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접속어미와 어울려 후행절을 이끌기도 하고, 문장의 끝에서 상대대우, 시제 등을 실현시킨다.<sup>6)</sup> 따라서 '-(으)르까 하-'는 접속어미든, 전성어미든, 종결어미든 어미와 결합에 있어서 제약이 거의 없다.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 (5) 가. 출출할까 해서 음식을 사 왔다.
- 나. 나도 꾸미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정성껏 화장했다.
- 다. 지난번 다친 상처는 많이 나았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 라.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했는데 역시 거짓말한 것이었다.

6) 이러한 '하-'를 박승빈(1935), 서정수(1975)에서는 형식동사로, 홍재성(1997, 1999), 양지현(2007)에서는 경동사로 보았다. 형식동사로서 '하-'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을 지닌 선행요소 뒤에서 어휘적 의미 없이 문법형태소를 실현시키는 동사이다. 경동사 '하-' 역시 어휘적 의미가 비어 있는 동사로, VP나 문장을 이끄는 선행요소가 의미적 핵의 지위를 갖고 단문구성이 가능하도록 밑받침 역할을 하는 동사이다.

- ㄱ.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을까 해요.
- ㄴ.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지 않을까, 있는 게 아닐까} 했어요.

위 (5ㄱ)~(5ㄴ)은 복문에서 추측의 ‘-(으)ㄴ까 하-’가 자연스럽게 어울린 예이다. (5ㄱ)~(5ㄴ)은 종결어미와 어울린 예이다. 특히 ‘-지 않을까 하-’나 ‘-게 아닐까 하-’ 부정형은 추측에서만 쓰인다.<sup>7)</sup>

다음은 추측의 ‘-(으)ㄴ까 보-’이다. ‘-(으)ㄴ까 보-’의 ‘보-’는 눈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행위’의 의미가 없다. 이때의 ‘보-’는 감각동사로서, <sup>8)</sup>앞말 ‘-(으)ㄴ까’에 담긴 추측의 의미를 수용하거나 어렵פות이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6) ㄱ. 출출할까 봐서 음식을 사 왔다.
- ㄴ. ‘나도 꾸미면 예쁘지 않을까 봐서 정성껏 화장했다.
- ㄷ. ‘지난번 다친 상처는 많이 나았을까 보는 걱정이 앞섰다.
- ㄹ.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봤는데 역시 거짓말한 것이었다.

7) 종결어미와 어울릴 때는 ‘하-’보다는 ‘싶-’가 아래와 같이 더 자연스럽다.

- (예) ㄱ.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을까 싶어.
  - ㄴ.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지 않을까, 있는 게 아닐까} 싶어.
- 의미상 (예ㄱ)과 (예ㄴ)은 다르다. (예ㄱ)은 아마 자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예ㄴ)은 여전히 자고 있을 거라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어떤 의미든 문장 자체는 어색하거나 비문이 아닌 것이다. 경희대 5권에서는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종결어미 ‘-네’, ‘-습니다.’ 등과 결합한 ‘-지 않을까 싶-’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 (예) ㄱ. 오늘의 마지막 참가자는 역대 최연소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ㄴ.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 황병순(1989)에서는 감각동사란 화자 내면의 움직임으로, 그 움직임이 남에게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 감각동사 ‘보-’는 어느 정도 인식단계에 이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인식이 간접 확인에 의한 것이라, 화자 입장에서 보면 인식이 감각적으로 이뤄진 1차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양지현(2018)에서 역시 ‘보-’를 감각동사로 보았다. 앞말의 양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인 것이다. 이 감각동사 ‘보-’ 뒤에는 단순한 서술이나 깨달음을 서술하는 어미 ‘-다’, ‘-네’, ‘-군’만 올 수 있으며, 시제 등이 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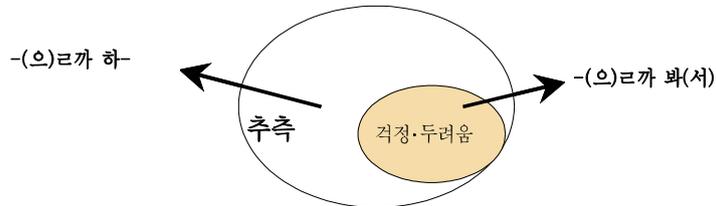
(6)은 복문에서 ‘-(으)르까 보-’가 접속어미 ‘-아(서)/어(서)’만 어울릴 뿐, 여타 접속어미와 잘 어울리지 못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접속어미 ‘-아서/어서’가 쓰이는 문장이라고 해서 다 정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6ㄴ)에서 알 수 있듯, 선행절의 의미에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화자의 내면이 섞여 있지 않다면 비문이 된다. 이는 (5ㄱ)과 (5ㄴ) ‘-(으)르까 해서’와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7) ㄱ. 오늘도 지각할까 봐 일찍 일어났어.  
 ㄴ. 일찍 일어났어. 오늘도 지각할까 봐.  
 ㄷ. 일찍 일어났네?/네, 오늘도 지각할까 봐요.

- (8) ㄱ.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을까 봐요.  
 ㄴ.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지 않을까 봅니다.  
 ㄷ. \*그녀가 지금도 자고 있는 게 아닐까 봤어요.

추측의 ‘-(으)르까 보-’는 문미에서 쓰이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 즉 (7), (8)에서 보듯, 복문에서 선행절이 도치된 것이거나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후행절을 생략하여 문미에서 쓰이는 것이다. 그 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상, 추측의 ‘-(으)르까 하-/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으)르까 하-/보-’는 둘 다 추측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다. 다만, 추측의 ‘-(으)르까 하-’가 ‘-(으)르까 보-’보다는 쓰임의 폭이 더 넓다. ‘-(으)르까 보-’는 의미상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 등의 의미가 섞인 추측표현에서만 쓰이며, 형태상 ‘-(으)르까 봐(서)’로 고정되어 복문에서 쓰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 3.2. 의도의 ‘-(으)르까 하-/보-’

여기에서도 의도의 ‘-(으)르까 하-’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으)르까 하-’의 ‘하-’ 역시 ‘-(으)르까’에 담긴 의도의 의미를 수용하면서, 접속어미와 어울려 후행절을 이끌기도 하고, 문장의 끝에서 상대대우, 시제 등을 실현시킨다.

- (9) ㄱ. 주말에 고향에 갈까 해서 기차 시간표를 알아보았다.
- ㄴ. 수영을 배울까 하는데 어느 학원이 좋을까요?
- ㄷ. 조금이라도 먹을까 하는 생각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위 (9)는 복문에서 ‘-(으)르까 하-’가 자연스럽게 어울린 예이다.

- (10) ㄱ.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까 해요.
- 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지 말까 해요.
- ㄷ. 어제까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말까 했어요.
- ㄹ. ‘어제까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까 했어요.

‘하-’는 (10)에서처럼, 종결어미와 어울림에도 제약이 크게 없다. 의도를 드러낼 때도 과거 상황에서의 의도표현이든 현재 상황에서의 의도표현이든 구애를 받지 않는다. 부정형에서는 추측과는 달리, ‘-지 말까 하-’형으로 제시된다.

- (11) ㄱ. ‘너를) 한 대 때릴까 해

ㄴ. \*(너를) 확 안아 버릴까 해

다만, (11)에서 보듯이 마주 보고 있는 상대를 향해 순간적이고도 즉흥적인 의도·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에서는 ‘하-’가 쓰이지 않는다.

다음은 의도의 ‘-(으)르까 보-’이다.

(12) ㄱ. \*주말에 고향에 갈까 봐서 기차 시간표를 알아보았다.

ㄴ. \*수영을 배울까 보는데 어느 학원이 좋을까요?

ㄷ. \*조금만 먹을까 보는 생각에 냉장고 문을 열었다.

(12)를 보면, 복문에서 의도의 ‘-(으)르까 보-’는 어울려 쓰이는 접속어미가 없다. 문미에서는 종결어미와 어울리기는 하나 아래 (13)에서 보듯, ‘-(으)르까 보-’에는 시제가 오지 못한다. 이는 ‘보-’가 감각동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ㄷ)의 ‘-(으)르까 하-’와는 달리 과거 상황에 대한 의도표현에는 쓰이지 않는다.

(13) ㄱ.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낼까 봐요.

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지 말까 봐요.

ㄷ. \*어제까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까 봤어요.

ㄹ. \*어제까지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말까 봤어요.

마지막으로, ‘-(으)르까 보-’는 마주 보고 있는 상대를 앞에 두고 화자가 순간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에 자주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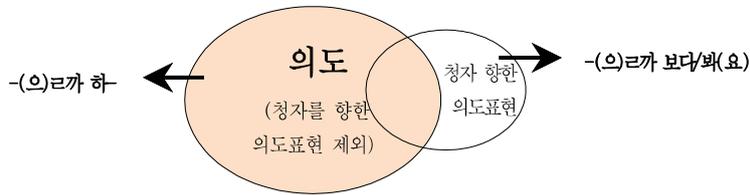
(14) ㄱ. (너를) 한 대 때릴까 봐

ㄴ. (너를) 확 안아 버릴까 보다.

이상, 의도의 ‘-(으)르까 하-/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으)르까 하-/보-’는 둘 다 의도의 의미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다. 다만, 청자를 앞에 두고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낼 때는 ‘-(으)르까 하-’는 쓸 수 없고, ‘-(으)르까

보-'만 쓸 수 있다. 형태적 제약도 다르다. '-(으)르까 하-'는 접속어미, 종결어미, 시제 등과 크게 제약 없이 쓰이나, '-(으)르까 보-'는 접속어미와 어울리지 못한다. 종결어미와는 어울리는데, 모든 종결어미와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미에서 형태상 '-(으)르까 봐(요)', '-(으)르까 보다'로 고정되어 쓰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 4. '-(으)르까 하-/보-' 교육 방안 제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에서는 의도를 드러내는 '-(으)르까 하-'와 두려움이나 걱정을 동반한 추측을 드러내는 '-(으)르까 봐(서)'를 한국어 초·중급 수준에서 제시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추측을 드러내는 '-(으)르까 하-'라든가, 의도를 드러내는 '-(으)르까 보-'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초·중급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법교육과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교육이다. 특히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적이고 공적인 상황의 의사소통, 사회 문화 이해'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교재에 제시된 상황'에 따라 자주 쓰이는 어휘와 문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문법을 가르치다 보니 모두 가르치지 못하고 일부만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한 형태에 양태가 둘 이상 담겨 있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언어 이해 측면에서든 언어 사용능력 향상 측면에서든 하나의 양태만 가르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둘 다 가르치지 않는다면 몰라도 일부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으)르까 하-/보-’는 사용이 잦은 표현이므로 여기에 담긴 추측과 의도는 모두 교육될 필요가 있다.

추측과 의도는 ‘-(으)르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어울려 쓰는 용언 ‘하-’나 ‘보-’에 따라 서로 쓰임이 겹치기도 하고, 그 의미나 통사적 특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습의 부담이 적거나 자주 쓰는 것을 우선 제시하여 그 특성을 교육하고, 이후 서로 비교해 줌으로써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잘 부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3장에서 살펴본 ‘-(으)르까 하-/보-’의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추측의 ‘-(으)르까 하-/보-’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먼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추측의 ‘-(으)르까 하-’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교재대로라면 추측의 ‘-(으)르까 보-’의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으)르까 하-’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9)</sup> 그러나 추측의 ‘-(으)르까 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문에서 접속어미와도 잘 어울려 쓸 뿐만 아니라 종결어미와도 자주 쓰이는 표현이므로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으)르까 보-’와 비교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도 있다.

교육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추측의 ‘-(으)르까 하-’에 대한 교육을 ‘-(으)르까 보-’ 교육에 앞서 하도록 한다. 시제나 여러 접속어미와 결합할 때 ‘-(으)르까 보-’에 비해 제약이 없고 쓰임이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으)르까 하-’가 시제, 어미 결합 양상 등을 충분히 보인다.

9) 추측의 ‘-(으)르까 하-’는 서울대5에서 ‘-지 않을까 하-’ 형태로, 경희대5에서 ‘-지 않을까 싶-’ 형태로 가볍게 제시되어 있고, 그나마도 문미에서의 쓰임만 보여 준다. 추측의 ‘-(으)르까 하-’가 부정형으로 문미에서 많이 쓰이므로 한국어 교재에서도 형태를 이와 같이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측의 ‘-지 않을까 하-/싶-’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문에서 접속어미와도 잘 어울려 쓰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추측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담긴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보여서 ‘-(으)르까 하-’가 두루 쓰인다는 것을 교육한다. 특히 두려움이나 걱정이 담긴 내용일 경우 접속어미 ‘-어서/아서-’와 결합한 양상을 보여 준다. ‘-(으)르까 보-’를 가르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추측의 ‘-(으)르까 보-’는 기존의 교재 제시 방법대로 형태를 고정하여 ‘-(으)르까 봐(서)’로 제시한다.<sup>10)</sup> 형태를 고정하면 추측으로 쓰이는 ‘-(으)르까 보-’가 문미에서 종결어미와는 쓰이지 않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때 ‘-(으)르까 봐(서)’가 의미적으로도 ‘걱정이나 두려움’을 담고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이때도 ‘-(으)르까 해(서)’와 비교해 주면 더욱 학습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음은 의도의 ‘-(으)르까 하-/보-’에 대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이다.

의도의 ‘-(으)르까 하-’가 교재마다 제시된 것에 비해 의도의 ‘-(으)르까 보-’에 대한 교육은 연세대(YS) 교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1)</sup> 동일한 형태의 어구에 추측과 의도가 모두 있는 것이므로 의도의 ‘-(으)르까 보-’ 역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는 서로 쓰임이 겹치기도 하지만 마주 보고 있는 청자를 향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낼 때는 겹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들이다.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의도의 ‘-(으)르까 하-’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초급2 정도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으)르까 하-’의 쓰임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 ‘-(으)르

10) ‘-(으)르까 보-’는 특정 통사구조에서 어느 정도 형태가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추측의 접속어미 ‘-(으)르까봐(서)’와 의지·의도의 종결어미 ‘-(으)르까봐(요)’로 각각 문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일부 교재에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어미가 된 것은 아니므로 띄어 써서 ‘-(으)르까 봐(서)’와 ‘-(으)르까 봐(요)’로 제시한다.

11)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재 외에 임의로 몇 군데를 더 선정하여 살펴봐도 의도의 ‘-(으)르까 보-’를 가르치는 교재를 보지 못했다.

까 하-'에 비해 쓰임이 적은 '-(으)르까 보-'는 그 이후에 가르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의도의 '-(으)르까 보-'는 추측의 '-(으)르까 보-'보다 뒤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마다 추측의 '-(으)르까 보(서)'가 대체로 중급 교재나 학습자료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추측의 '-(으)르까 보(서)'를 익힌 후에 의도의 '-(으)르까 보-'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 있어 학습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으)르까 보-'는 문미에서 '-(으)르까 보(요)', '-(으)르까 보다'로 제한되어 쓰이며, 시제와는 더불어 쓰이지 않는다는 제약도 설명한다.

이후, 의도의 '-(으)르까 보-'를 익힌 학습자에게는 의도의 '-(으)르까 하-'와 비교해 준다. 통사적 차이뿐만 아니라 청자를 향해 화자의 의도를 드러낼 때 '-(으)르까 하-'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학습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다.

## 5. 마무리

한국어 교재에는 추측표현과 의도표현을 여러 형태로 가르치고 있다. 이 중 추측과 의도를 모두 지니는 것으로 복합형 '-(으)르 테니까', '-(으)르 것이다' 등이 있다. 이는 각 교재에서 단원을 달리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추측과 의도의 양태 모두를 지닌 것인데도 한국어 교재에서 '-(으)르까 하-'는 의도에, '-(으)르까 보-'는 추측에 치중하여 교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형태의 문법구성이 둘 이상의 양태를 드러내는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으)르까 하-/보-'에는 추측과 의도의 양태가 담겨 있으므로 둘 다 가르쳐야 한다. 물론 모든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어,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미처 살펴보지 못한 대학 교재에 '-(으)르까 하-/보-'에 추측과 의도가 들어 있음을 모두 설명한 교재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교재든, 담지 않은 교재든 한 어구에 담긴 양태는 모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으)르까 하-’와 ‘-(으)르까 보-’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언해 보았다.

## 참 고 문 헌

- 강홍구, 『보조동사 ‘싶다’, ‘보다’, ‘하다’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한어문교육』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0, 77~100쪽.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2』, (주)교보문고, 2017.
- 고영근,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1986.
- 고영근·남기심, 『국어의 통사 의미론』, 탑출판사, 1983.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권재일, 『국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문기, 『말할이 지향 풀이씨의 통어·의미적 특성』 『우리말연구』11, 우리말학회, 2001, 19~42쪽.
- 김성희 외 6명, 『서강한국어new3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2008.
- 김성희 외 7명, 『서강한국어new4A』,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출판부, 2015.
- 김영희, 『“하다”: 그 대동사 설의 허실』, 『배달말』9, 배달말학회, 1984, 51~56쪽.
- 김중섭, 조현용 외 3명, 『경희 한국어 문법1』, 하우, 2014.
- 김중섭, 조현용 외 4명, 『경희 한국어 문법3』, 하우, 2014.
- 김중섭, 조현용 외 5명, 『경희 한국어 문법2』, 하우, 2014.
- 김중섭, 조현용 외 5명, 『경희 한국어 문법5』, 하우, 2015.
- 김태엽,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 국학자료원, 2001.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8.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한국어2』, 투판즈, 2014.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한국어3』, 투판즈, 2015.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한국어5』, 투판즈, 2012.
- 양지현, 『-(으)르까 하-/싶-/보-’에 대해서』, 『배달말』62, 배달말학회, 2018 2 5~47쪽.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1』,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2』,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3』,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 한국어4』,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3.
- 윤혜진, 『한국어 교육용 추측표현 항목 선정과 등급화에 관한 연구』,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14, 2011. 151~170쪽
- 이정희 외 4명, 『경희 한국어 문법4』, 하우, 2015.
- 이현희, 『‘ㅎ다’ 語詞의 性格에 대하여 : 누리ㅎ다類와 잇터ㅎ다類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2, 한신대학교, 1985, 221~247쪽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2-2』, Epress, 2010.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3-1』, Epress, 2011.
- 이희자 · 이종희,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2006.
- 호광수, 『보조용언 ‘보다’의 의미고찰』, 『인문과학연구』18, 조선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96, 269~284쪽
- 황병순, 『‘V어하다’와 ‘V어지다’의 형성원리에 대한 연구』, 『배달말』17, 배달 말학회, 1992, 20~25쪽
- 황병순, 『감각동사 ‘보다’와 행위동사 ‘보다’』 『배달말』14, 배달말학회, 1989, 89~106쪽

## 【Abstracts】

### A Propose of modal education for Korean learners

– around ‘-(eu)lkka ha-/bo-’ used to mean conjecture and intention.

Yang, Jihyeon

There are many phrases used to imply conjecture and intention in Korean textbooks. Among those phrases, those compound phrases used to include both conjecture and intention include ‘-(eu)l tenikka’, ‘-(eu)l keosida.’ In Korean textbook, although the same phrase, they are the same units to deliver conjecture and intention separately. In case of having more than two modes in one phrase, it is appropriate to teach all the modes rather than educating one mode only, it is better for learners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The reason for dividing unit to make it easier for learners to understand.

Although ‘-(eu)lkka ha-’ and ‘-(eu)lkka bo-’ contain both conjecture and intention, but it is found out that ‘-(eu)lkka ha-’ is focused more on intention and ‘-(eu)lkka bo-’ more on conjecture, in terms of education in Korea textbook. However, ‘-(eu)lkka ha-’ and ‘-(eu)lkka bo-’ are compound phrases often used in Korean, they should be educated from both modes, conjecture and intention.

Conjecture and intention are included in ‘-(eu)lkka’ and may be used overlapped with ‘ha-’ or ‘bo-.’ Their meaning or syntactic features may

vary little. Therefore, this research tries to look into meaning and syntactic feature of ‘-(eu)lkka ha-’ and ‘-(eu)lkka bo-’ and suggest education method for effective teaching. It is important to teach words that are often used or not so burden to students. Then, it is better to educate their features and compare then so that students can apply those words to their communication easily.

Key Words: conjecture, intention, mode, -(eu)lkka ha-, -(eu)lkka bo-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